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와 기관의 보고를 11월 25일까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 입교하실 분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복을 입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안수 이윤석 문복순 이근식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박영신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박영희 김종락
 오늘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이주율 현우영
 다음주설거지봉사 : 양상철 박재란 이준하 김정우
 새 교 우 : 류석호(청)
 떡 과 커 피 대접 : 장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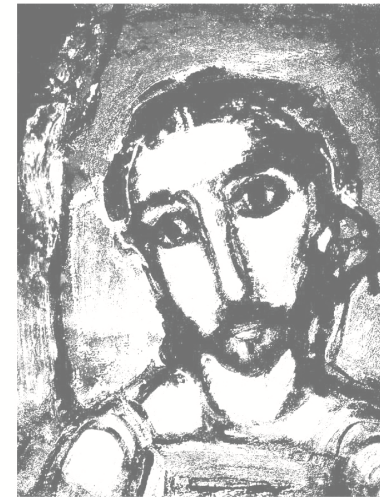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겨울을 맞으며 추위와 가는 세월을 한탄할 뿐 첫눈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설레는 마음으로 첫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쉽게 지치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기운을 덧입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의지해 바른 길을 당당하고 힘차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윤수 박상호 김재흥 최희영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노준우 문복순
 최현선 박창운 허정운 송임희 윤미경 윤수진 윤주원 최윤선 이우엘
 이윤석 박안수 이은자 이종현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옥 전영자
 정우선 조병익 조정연 조병주 최철수 광권희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김경혜 박병구 이춘재 장영숙 6여선교회 무명4

녹색꿈헌금:

김정진 임승동 백혜숙 무명2

생일감사헌금:

류정옥 무명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박효선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손성현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광권희 허정운 김금순 권미숙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오승경 박성희 임정자 이명희 정경례 광권희 박효선 김금순 이형숙 이증자 김희우 이자애	정두리 박미영 최경미 최종미 문금석 백묘현 배상순 이순정 김필순 김명희 홍춘기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다시 꿈꿀 수 있다면

다시 꿈꿀 수 있다면

개미 한 마리의 손톱으로 사천오백 날쭈

살아낸 백송, 뚫고 들어가 살아보는 일

나무속에 살면서

제 몸의 일부를 썩히는 일

제 혼의 일부를 빼어내는 순간을 닮아보는 일

향기가 악취 되는 순간을 껴안는 일

다시 꿈꿀 수 있다면

제 것인 양 슬픔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누군가의 슬픔을 소리 낼 줄 아는 새가 되는 일

새가 되어 살면서

미처 못 간 길, 허공에 길을 내어주는 일

그 길을 또다시 잃어버리고도

개미 한 마리로 살아내게 하는 일

나무속에 살면서 새가 되어 살면서

축복은 神이 내리고

불운은 인간이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 박라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희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악한 말과 악한 일을 버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평화를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 관계 속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보다는 감정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평화를 목표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평화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옥식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조재훈 선생 이현순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상익 정한구 조선환 왕영순 강인숙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고구마

“엄마, 밥은 읍대유?”

김치와 함께 달랑 찢 고구마 한 그릇이 놓인 밥상을 보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묻는다.

“그려. 오늘 점심은 그걸로 혀라.”

실은 엄마의 점심은 없었다. 고구마도 수확이 막 끝난 밭에 가서 주어진 이삭이라는 걸 안 것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어쩌면 이런 에피소드는 내 어머니만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어머니가 아니어도 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올라가면 누구의 가계家系든 있다. 우리는 짜지게 가난했고, 그때 고구마도 있었고, 이 땅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로 어머니가 희생으로 키웠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 땅에는 구황식물이 참 많았다. 산야에 널린 온갖 풀과 나무가 거의 다 포함된다. 그 중에 고구마만한 것이 있을까. 수많은 작물 중에 고구마만큼 그악스런 작물도 없다. 줄기를 끊어 흙에다 꽃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가물고 척박한 땅에서도 고구마는 달린다.

르완다에서 고구마 순을 보았다. 호텔(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여인숙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소박한 집) 창문에서 내다보니 좀 떨어진 밭에서 아기를 들쳐 었은 엄마가 팽이로 땀을 뻘뻘 흘리며 두뚝을 만들었다. 며칠 후 그곳에 가 보니 그날 고구마 순을 내었던 모양인데 거의가 말라죽고 있었다.

어느 해 같으면 9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지만 그 해는 10월에도 바짝 마른 흙바람이 건뚝 춤을 추었다. 걱정스러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다.

“이렇게 순이 죽는데도 고구마가 달리나요?”

“그럼요. 아무리 가물어도 고구마는 먹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심지요.”

얼굴이 칠흑같이 어두워 나이를 짐작할 수 없지만, 잘 해야 50세 이쪽 저쪽(르완다는 말라리아 때문에 평균수명이 50세 정도). 그의 나이로 짐작하건데 그 아기 엄마가 고구마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안심

하면서 돌아왔다.

국내 학자의 계산을 들여다보면 고구마는 구황작물임에는 틀림없다. 생 고구마 100g에는 128cal의 에너지가 들어 있다. 고구마는 적어도 10아르에 2.5톤(보통 3톤)은 생산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따지자면 32만 4천kcal를 생산하는 셈이다. 쌀은 100g에 348cal로 같은 무게에서 고구마의 약 3배 에너지를 낸다. 하지만 10아르에서 쌀 700kg이 나오면 에너지는 24만kcal, 고구마의 75%에 불과하다. 같은 면적에서 고구마는 벼에 비해 생산량은 5배, 에너지는 1.3배 이상 더 많이 만드는 셈이다. 말하자면 고구마는 태양에너지를 매우 잘 활용하는 작물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황작물로, 최근에는 대체에너지작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에 와서 고구마는 이미 구황식품이 아니라 새로운 다이어트 식품,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더구나 요즘 색깔 고구마의 출현으로 항노화식품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자색은 고열에도 파괴가 안 되는 안토시아닌,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이 매우 높다. ...

이렇다 할 굳것질거리가 없었던 어린 시절, 목밭을 뒤져 메꽃 뿌리를 캐어 먹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호미로 캐어 옷에 쓱 문질러 입에 넣고 아삭아삭 씹으면 단물이 흘러나왔다. 고구마와 메꽃이 사촌임을 안 것은 고구마 꽃을 보고 나서였다. 아니, 닭은꼴로 보면 형제가 맞다. 고구마 꽃은 열대, 아열대에서는 잘 피지만, 온대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다. 때문에 고구마 밭에서 꽃이 피면 경사가 있을 거라고 주인은 기뻐했다. 그래서 고구마 꽃은 ‘행운의 꽃’으로 지목된다.

왜 열대지방에서는 꽃이 잘 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피나? 고구마는 앞에서 양분을 만들면 무조건 뿌리로 보내 저장한다. 그러다 보니 앞에는 언제나 여분의 양분이 없어 가난하기만 하다. 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꽃을 피게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말이다. 죽는 힘을 다해 뿌리를 키우다 보니 어느덧 서릿가을이 온다.

고구마의 생애를 들여다보다 문득 떠오른 모습이 있었다. 우리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생과 엇비슷하지 않은가? 버는 족족 자식에 주다 보면 어느덧 삭신을 쓰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 노후대책을 세울 만한 여유가 언제 있었던가. 그 뒤의 이야기는 말 안 해도 다 안다. 자식들의 처분만 바라보며 시난고난 황혼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